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22. 5. 17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정수호, 사무관 양윤정, 주무관 김연규 • ☎ (044) 201-3258, 3261, 3259
	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물류실장 문상모, 수석연구원 홍정표 • ☎ (031) 389-6437, 6447
보 도 일 시		2022년 5월 18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8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“국토교통+DNA 융합” 으로 미래 신산업 이끈다

- 국토교통 DNA⁺ 융합기술대학원 3곳(아주대·인천대·항공대) 신규 선정

□ 그간 전통산업으로 여겨지던 국토교통 산업과 미래 핵심기술인 DNA(DATA, NETWORK, AI)가 융복합되어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토교통 산업과 DNA 기술을 접목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「국토교통 DNA⁺ 융합 기술대학원」 프로젝트를 시작하고,

- 그 첫 번째 지원대학으로는 아주대학교, 인천대학교, 한국항공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에 선정된 각 대학은 5년간 약 60억원*을 지원받아 ①각 분야별 맞춤형 석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, ②혁신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, 현장실습 등을 병행하며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하게 된다.

* 학위과정 개설·운영비(교육커리큘럼, 교원, 실험장비 등)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예산 지원

□ 금년에는 △도로교통, △물류, △항공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 하였으며, 학위과정 커리큘럼, 인재양성 로드맵, 산학연계 방안 등이 우수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.

* 총 7개 대학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, 2.3:1의 경쟁률을 기록

□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아주대 컨소시엄*이 선정되었다.

- 'AI모빌리티공학과'를 신설해 모빌리티 인프라, 미래차 등을 포함한 융복합 커리큘럼을 다루는 한편, 인공지능,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석박사 인재들이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도 겸비하도록 할 예정이다.

* 아주대, KAIST, 노타(인공지능 모델 개발), 이엠지(지능형교통체계 플랫폼) 등 4개 기관

□ 물류 분야는 인천대 컨소시엄*이 선정되어 'DNA+융합물류시스템 학과'를 개설할 계획이다.

-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사업모델 발굴 등 사업화 역량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역량을 갖추도록 데이터마이닝, AI 네트워크 등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다양한 물류 IT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물류자동화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.

* 인천대, 원제로소프트(물류데이터플랫폼), 볼드나인(디지털트윈), CnTR(물류 빅데이터), PLZ(관제솔루션), 플로틱(물류로봇) 등 6개 기관

□ 항공 분야는 한국항공대 컨소시엄*이 선정되어 'DNA+ 항공 융합 전공'을 신설할 계획이다.

- 운항·정비·관제에 전주기적으로 DNA 기술을 결합하고,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안전비행, 데이터·딥러닝에 기반한 스마트 정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된다. 드론, 항공 IT 등 관련 기업과 함께 드론 서비스 개발, 플랫폼 사업화,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
* 한국항공대, 파블로항공(드론 서비스), 더피치(드론 HW·SW) 등 3개 기관
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은 “자율주행, 스마트시티, 드론 등 융복합을 통한 국토교통 신산업이 급성장 중인 상황에서 산학수요 맞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”며, “내년에는 자유 분야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 전략일자리담당관 양윤정 사무관(☎ 044-201-32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